

20세기 셰익스피어 비평

—역사적 접근법—

李 京 植

20세기비평에서 시적 접근법과 더불어 가장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인 비평방법은 역사적 접근법(historical criticism, historicism, 혹은 scholarship)이다. 간단히 말해서 역사적 방법이란 역사의 도움을 받아 문학 작품을 평가하는 비평을 뜻한다.

역사와 문학과의 관계를 처음으로 조리와 설득력을 가지고 이야기한 사람은 Hippolyte-Adolphe Taine였다. 그는 1863~67년에 출판된 *The History of English Literature*(1871년에 H. Van Laun이 영역함)의 'Introduction'에서 양자의 관계를 논하였던 바 그 요지를 간추리면 대략 다음과 같다.

literary work는 단순히 상상에 의한 어떤 'individual play' 즉 흥분된 머리의 고립된 변덕이 아니고 'a transcript of contemporary manners, a manifestation of a certain kind of mind'이다. 따라서 문학작품들에서 우리는 수 세기 전의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꼈는지를 찾아볼 수 있다. fossil shell 밑에는 동물이 있고 manuscript(document) 밑에는 인간이 있다. shell을 연구하는 것은 그 밑의 동물을 알기 위해서이고, 문서를 연구하는 것은 그 밑의 인간을 알기 위해서이다. 문서를 고립적인 존재인양 연구하면 잘못이다. 신화나 언어들의 경우는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것은 오직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들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단어들과 imagery를 배열한다. 어떤 개별 인간을 통하지 않고서는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바로 이 개별 인간을 알아야 한다. 역사는 과거의 인간을 엿보게 해준다. 역사는 경과한 시간을 단축시킨다고 볼 수 있다. 과거가 현재로 만들어져야 우리는 과거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재구는 항상 불완전하다. 그래서 이것은 불

완전한 판단들을 낳을 수 있으나 이는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불완전한 지식은 무지보다는 좋은 것이며, 경험하지 못한 과거의 사건들을 근사치로서라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과거의 재구 곧 역사 뿐인 것이라고 Taine는 말했다.

역사적 접근법은 Bradley 유의 unhistorical approach나 new critics들의 anti-historical approach와는 달리 역사적 data를 작품해석에 이용한다. 셰익스피어 비평의 경우 역사학파는 Elizabethan terms로, 다시 말해서 Elizabethan theatrical conditions, stage and dramatic conventions, 철학적, 심리적, 정치적 idea들과 ideal들과의 관계에서만 셰익스피어극들은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역사적 비평가들의 관심사는 작가가 작품을 창작한 환경과 조건들(conditions)을 재창조하는 일, 문학작품이 쓰여지는데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고 보는 그 시대의 특징적인 철학적 사상, 작품의 출전들, 작품의 본문, 작가의 지적인 신념들, 작가의 전기 등 소위 extra-literary한 것들이다.

물론 이와 같은 extra-literary concern들에만 탐닉하고 작품 자체의 분석을 게을리한다면 역사적 접근법은 비난을 받을 여지를 갖고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예를 볼 수 있으며, New(formalist, poetic) Critics 등이 역사적 접근법에 반대하는 주요 원인도 그것이 sources, biography, intellectual milieu 등에 집중하는 나머지 작품 자체의 분석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Woodhouse 교수는 역사적 접근법이 관심을 작품 자체 곧 text에서 extra-literary한 것들로 옮기는 폐단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text를 밝혀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역사적 접근법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다.

Meanwhile we must notice the common indictment of the Historical Critic that he allows a consideration of sources and analogues, and of historical influences generally, to distract his attention from the text. This, in so far as it is true, is an example of human weakness, and no necessary concomitant of the historical method; for the very object with which the historical data are brought forward is the elucidation of the text.¹⁾

그러면 역사적 접근법이 셰익스피어 비평에 응용된 주요 경우들과 이

1) A.S.P. Woodhouse, 'The Historical Criticism of Milton', *Twentieth Century Criticism: The Major Statements* ed William J. Handy and Max Westbrook (New Delhi: Light & Life Publishers, 1974), p. 329.

것들이 일으킨 반론들을 살핀 후에 역사적 접근법의 장단점 혹은 한계점을 알아보자.

I

Dryden, Pope, Dr Johnson 등도 역사적 접근법으로 셰익스피어를 비평한 사람들로 볼 수 있지만 이 비평방법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이다. J.M. Robertson은 *The Problem of "Hamlet"* (1919), *"Hamlet" Once More* 등에서 Hamlet 왕자의 근본적인 문제인 복수지연은 작품이나 Hamlet의 성격만으로는 풀 수 없으며 *Hamlet*의 출전들과의 관계에서 이 극을 과학적으로, 기원적(genetic)으로 설명함으로써 풀 수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해서 이 극의 역사가 이 극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The history of the play is...vital to the comprehension of it.') Robertson은 셰익스피어의 *Hamlet*는 복수극 *The Spanish Tragedy*를 쓴 Thomas Kyd의 현존하지 않는 *Hamlet*의 번안물로 본다. 소위 *Ur-Hamlet*로 칭해지고 있는 이 *Hamlet*는 Greene의 *Menaphon*(1589)에 붙친 Nashe의 Preface에서 인용되었고 Henslowe의 *Diary*(1594)에도 올라 있다. 요컨대, Robertson은 Hamlet의 지연에 관한 모든 이론들이 inconclusive한 것은 셰익스피어가 older play인 *Ur-Hamlet*를 번안했다는 사실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E.E. Stoll은 *Hamlet: An Historical and Comparative Study*(1919), *Art and Artifice in Shakespeare: A Study in Dramatic Contrast and Illusion*(1933), *Hamlet the Man*(1935) 등에서 *Hamlet*를 다루는 최적의 접근방법은 셰익스피어의 저작의도를 찾아내는 것이며, 그의 수법들, 구성들, 상황들, character들과 sentiment들을 *Hamlet*의 동시대 극들과 비교하는 것이라고 했다. Shakespearean character들의 consistency를 밝히려는 19세기의 성격비평 내지 심리적 접근법은 셰익스피어가 불가능을 잠시 믿게 만드는 위대한 illusionist임으로 해서 absurdity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했다. 따라서 셰익스피어의 극들이 특정한 약속들을 준수하고 있는 Elizabethan plays임을 간과하여 무대에서 공연될 때 목격되지 않는 inconsistencies를 애써 해결하려고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2) J.M. Robertson, *The Problem of "Hamlet"*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19), p. 30.

Stoll도 Robertson처럼 *Ur-Hamlet*를 Hamlet의 source-play로 보았으며 셰익스피어는 Kyd의 plot를 그대로 둔채 words와 sentiments 등의 form을 바꾸었다고 주장했다.

When Shakespeare rewrote for his company Thomas Kyd's Senecan melodrama, now lost, he was, as usual, interested in the tragedy as a whole, not in a psychology;...he strengthened the structure, sharpened the suspense, and in particular pitted against the hero a king that was more nearly and worthily a match for him. The difficulty was the hero's delay, which was unavoidable. The dramatist could not (if he would) change the popular old story; the capital deed must, as there and in all other great revenge tragedies, ancient or modern, come at the end.³⁾

Stoll은 *Hamlet*가 복수비극이지 결코 psychological study가 아니라면서 주인공의 지연은 희랍시대부터 내려오는 epical tradition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Hamlet의 심리적 inadequacy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Hamlet 왕자에게는 'tragic flaw'를 비롯해서 어떤 defect도 없다고 했다. 그는 이와 같은 그의 비평은 본문, 시대, 두 세기의 극전통과도 맞아떨어진다고 했다.

Such a Hamlet ... is in keeping with the whole play of which he is only an inseparable component, and with the nature of drama....He is a dramatic figure, not a psychological study.⁴⁾

Stoll과 거의 같은 시기에 그러나 그와는 독립적으로 역사적 접근법으로 셰익스피어를 평한 Levin Ludwig Schücking은 *Die Charakterprobleme bei Shakespeare* (Stoll의 *Hamlet: An Historical and Comparative Study*와 같이 1919년에 출판되었으며 1922년에 *Character Problems in Shakespeare's Plays*로 영역본이 나왔다)에서 셰익스피어의 art-form은 고도로 발달된 요소와 아주 원시적인 요소들의 혼합물임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셰익스피어 극의 출전들의 연구를 중요시하는 Stoll과 같은 입장을 일견해서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는 *Hamlet* 등과 같은 셰익스피어의 극을 설명하려면 그것을 Elizabethan dramaturgy의 맥락 속에 넣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Schücking은 Hamlet 왕자가 neurotic, morbid, melancholy type이며, defect가 없는 ideal hero는 아니라고 주

3) E.E. Stoll, *Art and Artifice in Shakespeare* (Cambridge, 1933), p. 94.

4) *Ibid.*, p. 121.

장함으로써 Stoll과 큰 의견차이를 빚고 있다는 것이다. *The Baroque Character of the Elizabethan Tragic Hero* (Annual Shakespeare Lecture, 1938)에서도 그는 이 점을 강조하면서 Hamlet를 ideal hero로 보는 것은 Elizabethan epoch 전체의 정신에 죄짓는 일이라고 했다.⁵⁾

이상에서 Robertson, Stoll, Schücking의 역사적 접근법을 일견했다. 이들은 제부에 들어가서는 자체 내의 의견불일치를 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부의 공격도 받았다. Lily Campbell도 Schücking과 같은 이유로 Stoll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다. J. Dover Wilson은 Stoll이 Hamlet를 내적 갈등이 없는 Avenger-Malcontent로 만들고 있는 데 대해 반대했다.

...that his [Stoll's] thesis is moonshine any unprejudiced reader of the soliloquy in 4.4. may see for himself. Not that the evidence of the soliloquies by any means stands alone. Hamlet's sense of frustration, of infirmity of purpose, of character inhibited from meeting the demands of destiny, of the futility of life in general and action in particular, finds utterance in nearly every word he says. His melancholy and his procrastination are all of a piece, and cannot be disentangled. Moreover, his feelings are shared and expressed by other characters also. The note of "heart-sickness" is struck by the sentry Francisco nine lines from the beginning of the play...In short, that

the native hue of resolution

Is sicklied o'er with the pale cast of thought,

is not merely the constant burden of Hamlet's meditation but the keynote of the whole dramatic symphony.⁶⁾

Dover Wilson은 이 밖에도 Stoll과 Schücking 등이 면밀한 분석없이 *Hamlet*를 relics와 fine poetry의 혼합으로서 규정짓는 역사적 접근법에 공격을 가했는데 이 공격은 J.I.M. Stewart에 의해서 보강된다. 예하여 Stewart는 극장전쟁에 관한 *Hamlet*의 이야기가 관객의 주목을 끌기 위한 조잡하고 시대착오적 방편이라는 Schücking의 주장에 대하여 이는 Renaissance시대 신사로서의 Hamlet 왕자의 취미의 다양성을 나타낸 교묘한 그리고 극적으로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논박했다.⁷⁾ Stewart는 "correct explanation"에 대한 Schücking의 criteria를 엄밀하게 조사한

5) L.L. Schücking, *The Baroque Character of the Elizabethan Tragic Hero* (London, 1938), p. 4.

6) J. Dover Wilson, *The New Shakespeare: Hamle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34), pp. Ix-Ixi.

7) J.I.M. Stewart, *Character and Motive in Shakespeare: Some Recent Appraisals Examined*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1950), p. 63.

결과 역사적 접근법의 validity를 의문시하게 되었다면서 도대체 *Hamlet*의 correct explanation을 어떻게 얻을 수 있으며 엘리자베스 시대인들의 극의 개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 다음과 같이 역사학파를 공격했다.

It is only too probable that what he [the historical critic] would have us accept as a criterion is simply what he conjectures was felt, expected, taken for granted, understood, approved by a synthetic or generic Elizabethan of his own fabrication. And thus, at the best, he will stop short just where the dramatist himself must be supposed to begin. Surely such a historical method is like Bottom's dream: it hath no bottom.⁸⁾

Lionel Trilling은 convention과 life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convention이 life에 대해 갖는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는 Stoll이 life가 항상 convention을 통해서 표현되며 life는 어떤 의미에서는 convention이고 이 convention은 life의 의도들 때문에 오직 의미를 지닌 다는 점을 간과했음을 지적했다. 또 그는 Stoll이 셰익스피어의 관객들이 convention을 의식했다("were conscious")는 가정을 계속 갖고 있지만 그들이 convention을 자각하고("were aware") 있긴 했지만 그것을 의식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시적 접근법의 태두의 한 사람인 G. Wilson Knight는 *The Wheel of Fire* (1930), *The Imperial Theme*(1930), *The Shakespearean Tempest* (1932), *The Crown of Life* (1947) 등에서 셰익스피어의 각 극작품은 자체의 법칙들(self-imposed laws)만을 따르는 한 편의 시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셰익스피어 극을 해석하였다. 이 접근법이 Bradley가 대변하는 심리적 접근법과 Stoll이나 Schücking이 대변하는 역사적 접근법과 날카로운 대립을 이루고 있음은 자명하다. Wilson Knight 식의 시적 접근법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L.C. Knights의 'How Many Children Had Lady Macbeth?' (1933)는 셰익스피어 극을 비평하는데 일체의 작품외적인 요소의 개입을 배제하고 있다.

요컨대, Stoll과 Schücking이 대변하는 역사적 접근법을 셰익스피어가 그의 시대의 무대 및 문학적 약속들 안에서 작품을 썼음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작품외적 요소들을 배제한다면 셰익스피어의 극예술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셰익스피어 비평에 있어서 배경

8) *Ibid.*, p. 42.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강조와 주장이 특히 *Measure for Measure*, *Troilus and Cressida*, *Timon of Athens* 등 문제극들을 이해하고 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은 명백하다. 한 가지 흥미를 끄는 것은 비평에서 작품의적인 요소들을 배격한 L.C. Knights가 *Drama and Society in the Age of Jonson* (1937)이란 책명을 달아 drama와 society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함축했으며 더욱이 "A study of the Economic and Social Background of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and its Bearing on the Works of Contemporary Dramatists"란 부제를 붙임으로써 작품의적인 요소들이 문학비평과 관계를 갖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말했다. 이것은 배경지식 곧 scholarship이 경우에 따라서는 또는 어느 정도는 문학비평에 필요함을 잘 말해주는 예라고 보겠다.

scholarship의 중요성이 인식됨으로써 여러가지 팔목할만한 셰익스피어 참고서들이 많이 나왔다. M.C. Bradbrook는 엘리자베스 시대의 비극의 주제와 약속들을 연구한 *Themes and Conventions of Elizabethan Tragedy* (1935)를 발표했다. Alfred Harbage는 셰익스피어의 극예술이 그의 관객들이 보인 반응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고 *Shakespeare's Audience* (1941), *As They Liked It* (1947), *Shakespeare and the Rival Traditions* (1952) 등을 저술하였다. 또 정치적, 종교적, 철학적 사상 등 엘리자베스 시대에 대한 배경지식을 정리한 A.O. Lovejoy의 *The Great Chain of Being* (1936), Hardin Craig의 *The Enchanted Glass* (1936), E.M.W. Tillyard의 *The Elizabethan World Picture* (1943) 등이 나왔다. Geoffrey Bullough는 1957년부터 셰익스피어 극들의 직접적인 출전들의 연구인 *Narratives and Dramatic Sources of Shakespeare*를 여러 권으로 내기 시작하였다. W.W. Lawrence는 *Shakespeare's Problem Plays* (1931)에서 narrative writing의 convention들을 연구함으로써 셰익스피어의 문제극들을 풀이하고 있다. Bernard Spivack은 Iago를 중심으로 셰익스피어 character의 특정한 유형들을 그 이전의 영국희곡과의 관계에서 규명하는 *Shakespeare and the Allegory of Evil* (1958)을 발표하였다.

II

Lily Campbell은 *Shakespeare's Tragic Heroes: Slaves of Passion* (1930)에서 *Hamlet*, *Othello*, *King Lear*, *Macbeth* 등 4대 비극에 대한 역사적

비평을 시도했다. Campbell의 기본적인 주장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English Renaissance의 배경하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가 말하는 English Renaissance의 배경은 비극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Elizabethan theory, passion의 구실에 대한 Elizabethan conception 및 passion, medicine, moral philosophy의 상호관계에 대한 Elizabethan idea 등이며, 이것들을 그녀는 셰익스피어 비극의 controlling condition들로 본 것이다.

Campbell은 특히 passion을 중요시하여 셰익스피어 비극의 요체를 이루는 것이 action이 아니라 passion이며, 비극적 결말들은 passion에 대한 처벌로서 모두 정당화된다고 주장했다.⁹⁾ Elizabethan conception에 의하면 passion은 love와 hate, desire와 aversion, joy (pleasure)와 grief (sadness) 등의 the concupiscible과 hope와 despair, courage와 fear, anger (wrath) 등의 the irascible을 포함하고 있으며, *Hamlet*는 grief란 passion에 의한 비극이며, *Ohello*는 jealousy, *King Lear*는 wrath, *Macbeth*는 fear란 passion이 가져오는 비극으로 해석하였다.

passion은 기독교적인 죄의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며, passion 때문에 범하는 죄에는 venial sin과 mortal sin 두 가지가 있으며 셰익스피어 비극의 주인공들은 전자를, 셰익스피어 비극의 악한들은 후자를 범한다는 것이다.

The tragic hero sins under the influence of passion, his reason failing to check his passion. His passion may lead him to madness, but as long as his passion is in conflict with reason, he has not committed mortal sin. When, however, passion has taken possession of his will, has perverted his will, when in perfect accord with passion his reason directs evil through the will, then we have a villain, one who is dyed in sin, and one whose sin is mortal.¹⁰⁾

Theodore Spencer는 'history of ideas'의 관점에서 *Shakespeare and the Nature of Man* (1942)을 썼다. Arthur Lovejoy의 *The Great Chain*

9) 자면 이 주장은 action을 셰익스피어 비극의 요체로 본 A.C. Bradley와 정면 충돌하는 주장이며, Campbell은 그후에도 'Bradley Revisited: Forty Years After' (*Studies in Philology*, XLIV, 2, April, 1947, 174-94)와 'Concerning Bradley's Shakespearean Tragedy' (*The Huntington Library Quarterly*, 7, Nov. 1949, pp. 1-18)에서 계속 Bradley의 셰익스피어 비평을 공격하였다.

10) Lily Campbell, *Shakespeare's Heroes: Slaves of Passion* (New York, 1961), p. 101.

of Being (1936)에서 방법론을 따온 것으로 보이는 이 책에서 Spencer는 *Hamlet*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인간의 본성(nature)에 대한 셰익스피어 시대의 두 견해(낙관적인 견해와 비관적인 견해) 간의 상충을 셰익스피어가 이용했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라고 했다.

I suggest that we can understand it best by realizing that in *Hamlet* Shakespeare for the first time used to the full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views of man's nature which was so deeply felt in his age. On one side was the picture of man as he should be—it was bright, orderly and optimistic. On the other was the picture of man as he is—it was full of darkness and chaos. Shakespeare puts an awareness of this contrast into the character of Hamlet, and his having done so is one of the main reasons for *Hamlet's* greatness.¹¹⁾

Hamlet 왕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전통적인 낙관적 견해를 믿도록 훈련받은 젊은이였으나 어머니의 욕정을 발견하고 왕국이 값없는 자의 수중에 들어감을 보게되자 이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이다.

Elizabethan optimism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주의 중심이며, 하나님은 인간에게 Bible과 Nature라는 두 책을 주어서 하나님의 message를 깨닫도록 했다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업적을 아는 것은 자신의 nature를 알고, 자신의 목적을 아는 것이며, 그의 vocation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마련해 준 질서임을 발견하게 되어 그는 그것을 고수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Elizabethan optimism은 *Troilus and Cressida*에 나오는 'degree' speech에서도 잘 나타나 있지만 세 가지(cosmic, natural, human) 세계(interrelated hierarchies)를 신이 통합했다는 divine unity에 대한 신봉이다. 바로 이 질서에서는 인간은 'the perfection and the end of all the creatures in the world'이다.

한편 Elizabethan pessimism은 인간을 더럽히는 일련의 주의들이다. 인간은 불복종의 죄를 통해서 대자연의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비참한 존재라는 것이다. 이보다 더 과격한 pessimism도 있어서 Copernicus가 'Ptolemaic system of cosmology'를 배격하고, Montaigne이 natural order를 해치고, Machiavelli가 정치적 질서를 망쳤기 때문에 질서가 파괴되었다고 했다.

악이 예의 세계의 세계 곧 cosmic, natural, human world에 단개하여

11) Theodore Spencer, *Shakespeare and the Nature of Man* (New York, 1961), p. 94.

셰익스피어는 *Hamlet*를 통해서 악의 질서파괴를 극화한 것이라고 Spencer는 설명한다. *Hamlet* 왕자는 optimism에서 pessimism으로 돌아다갈 끝에 가서는 stoicism을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질서를 얻는다고 그는 풀이한다. 그런데 Spencer의 해석에서 한 가지 주목할만한 것은 *Hamlet*가 낙관론과 비관론이 Elizabethan conflict를 극화했지만 이를 초월하여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인 출생, 성숙, 죽음이란 싸이클 곧 인간에 관한 궁극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한 점이다. Spencer의 풀이와 더불어 흥미있는 해석은 John F. Danby의 것으로서 그는 *Shakespeare's Doctrine of Nature: A Study of "King Lear"* (1949)에서 셰익스피어가 nature에 대한 두 개의 doctrine을 *King Lear*에서 극화했다면서 하나는 이 극의 good character들이 받들고 있는 것으로서 nature는 자비롭다는 Hooker와 Bacon의 소위 orthodox view이고, 또 하나는 이 극의 bad character들이 받들고 있는 인간은 전적으로 appetite와 self-interest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Hobbes의 자연관이다.

Spencer는 같은 역사적 비평가인 Lily Campbell의 견해를 부분적으로 공박했다. Campbell이 설명한 passion에 대한 Elizabethan view를 수긍하면서도 Spencer는 셰익스피어가 passion을 그의 극에 어떻게 이용하였는가에 대한 Campbell의 기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 이유는 셰익스피어가 단순히 case-history들을 쓰는데 관심을 기울였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다.¹²⁾

Campbell은 비역사적 비평가들로부터도 반박을 받았다. Peter Alexander는 *Hamlet*, Elizabethan tragedy, tragedy 등의 본질에 관한 Miss Campbell의 견해를 완전히 배격했다. 그는 비극에서 중요한 것은 action이라고 강조한 Bradley를 옹호하며, 이를 비판한 Campbell을 반박했다.

Campbell이 Bradley의 성격분석은 morals가 없는 morality의 기반 위에, 어느 시기에도 맞지 않는 psychology의 기반 위에 이루어졌다고 한 데 대해서도 Alexander는 승복하지 않았다.

The statement that Bradley worked on a foundation of morality without morals would have surprised not only Bradley but the Balliol from which he came, the Balliol that prided itself on its philosophy....As to Bradley's psychology being untrue to the psychological thinking of any period, it seems to have passed well enough in his own day and to remain more or less

12) *Ibid.*, p. 257.

intelligible.¹³⁾

또 Alexander는 Timothy Bright의 melancholy와 Thomas Newton의 complexions에 대한 당시의 글을 읽지 않고서는 셰익스피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한 Campbell의 말도 반박한다. 만약 셰익스피어의 인간관과 인간의 행동들에 대한 지식들이 자신의 체험과 관찰들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의 시대의 철학자들에게서 얻었다고 한다면 셰익스피어의 character들이 Bright나 Newton과 같은 당시의 철학자들의 논지들을 예시하는 puppet-show에 불과하다는 말이 된다면 Alexander는 Campbell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¹⁴⁾

Morris Weitz도 *Hamlet and the Philosophy of Literary Criticism* (1964)에서 Campbell이 grief의 본질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Hamlet*를 grief의 비극으로 잘못 풀었다고 했다. 그는 Campbell이 *Hamlet*의 grief를 Fortinbras와 Laertes의 그것과 비교한 것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Hamlet*가 선친이 당한 억울함에 대해서만은 슬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어머니의 'bestial act of hasty remarriage'를 회고하는 그의 첫독백에서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일련의 질문형식으로 Campbell을 반박한다.

Do not these lines ["O most wicked speed...hold my tongue"] express a grief that goes beyond a father's death to include a mother's incest and, also, if Spencer is right, a total loss of faith in the traditional orders? Hamlet's salient trait may be his grief, but, if it is, it calls for more than consolation for a father lost or wronged. Hence, my question to Miss Campbell is this: Is it a clear case of the sin of sloth to remain inconsolable in one's grief over a father murdered and a mother whored? What would the moral philosophers she continually cites have said about *His* sort of grief? Miss Campbell, thus, it seems to me, fails as a critic of *Hamlet* even in her central point that *Hamlet* is a study in grief because she does not at all discern the full and horrible nature of Hamlet's sorrow as he reveals it to us.¹⁵⁾

Spencer도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그의 비평의 대부분은 idea들

13) Peter Alexander, *Hamlet: Father and Son*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55), p. 54.

14) *Ibid.*, pp. 130-31.

15) Morris Weitz, *Hamlet and the Philosophy of Literary Criticism*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p. 89.

과 dramatic practice들의 순수한 역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설사 역사적인 연구를 셰익스피어 극의 풀이를 위해 적용했다고 해도 그것이 history이지 criticism이냐는 반론을 사고 있다. Spencer의 역사적 접근법의 주요 가정을 의문시하고 나온 사람은 역시 역사학파라고 볼 수 있는 Helen Gardner였다.

Gardner는 매우 조심스러운 역사학파의 학자이다. 그녀는 역사적 비평방법의 기본적인 위험은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것을 해석하고,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특수한 것을 해석하고, 평범한 것을 가지고 예외적인 것을 해석하는데 있다면서 “Elizabethan mind”에 대한 진술들을 회의적으로 대해야 함을 역설한다. 셰익스피어 시대의 사상체제를 제시하는 “Elizabethan World Picture”가 simple Elizabethan에게 과연 얼마나 많은 진리와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설사 셰익스피어 시대의 믿음과 태도들에 대한 최대공약수를 발견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 당시의 어떤 개인의 믿음을 오늘날의 우리에게 대변해줄 수는 없으며, 더우기 셰익스피어가 무엇을 믿었는지를 말해줄 수는 없다고 그녀는 말한다.¹⁶⁾ 만약 Spencer의 가정이 Gardner가 회의적으로 경계하듯 올바르게 없다면 Spencer는 존재하지도 않은 셰익스피어 시대의 사항들로서 *Hamlet* 등 셰익스피어 극들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것이 만족스러울 수 없을 것은 뻔하다.

III

역사적 비평가들의 기본 주장은 셰익스피어가 저작할 때 의도한대로의 그리고 엘리자베스 시대의 관객들이 이해한대로의 셰익스피어의 극을 우리에게 풀이해 주어야지 그것에 어긋나는 설명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역사적 비평가들도 셰익스피어 극에 대한 엘리자베스 시대인들의 이해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고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유일한 셰익스피어 극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사 셰익스피어 극에 대한 Elizabethan conception이 있었다고해도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알길이 없다. 따라서 이런 식의 역사적 추구는 끝이 없기 때문에 Stewart는 이를 “Bottom’s dream”이라고 풍자했던 것이다.

Lionel Trilling은 *The Liberal Imagination* (1942)의 “The Sense of

16) Helen Gardner, *The Business of Criticism*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p. 34.

the Past"에서 역사적 비평가들이 마치 Hamlet에 대한 Elizabethan conception이 존재했던양 그것을 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며, real Hamlet은 the Elizabethan Hamlet 뿐이라는 가정 역시 착각이라고 했다. 그는 "real" Hamlet를 셰익스피어가 의도한 것, 그의 첫 관객들이 본 것, 그의 첫 독자들이 읽는 것, 각 세기가 인지한 자기 다른 것 등의 복합이라고 했다.

What is the real poem? Is it the poem we now perceive? Is it the poem the author consciously intended? Is it the poem the author intended and his first readers read? Well, it is all these things, depending on the state of our knowledge. But in addition the poem is the poem as it has existed in history, as it has lived its life from Then to Now, as it is a thing which submits itself to one kind of perception in one age and another kind of perception in another age, as it exerts in each age a different kind of power.¹⁷⁾

Trilling은 문학작품이 생산된 intellectual condition들에 대한 연구는 "legitimate"하며 작품의 힘을 깨닫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Lovejoy가 *The Great Chain of Being*에서 idea들의 역사에 대한 연구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데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다. 이것은 extra-literary한 요소들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은 되지만("properly ancillary") 이것들을 너무나 절대시하는 극단은 배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바꾸어 말하면 Trilling의 입장은 시적 접근법과 역사적 접근법은 자기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의 장점을 적절히 이용하면 문학연구에 유익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Trilling은 문예작품이 'ineluctably a historical fact'이며, 작품의 historicity는 우리의 심미적 경험의 한 사실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역사학과에 속함을 보여준다. 그는 문학작품이 세 가지의 다른 의미에서 historical하다고 말한다. (1) 시인은 historian으로 생각되었다. (2) 문학은 필연적으로 그 자체의 과거를 깨닫고 있다. 왜냐하면 어떤 작품도 연속성이나 divergence에 있어서 과거작품과 연결됨으로써 존재하며, 작가의 독창성은 어디까지나 전통과의 특수한 관계일 뿐이기 때문이다. (3) 과거의 문학작품이 존재하는데 있어서 그것의 historicity, 그것의 pastness가 중요한 요소이다.

예술작품에는 pastness라고 할 수 있는 특정한 quality가 있다. 이 말

17) Lionel Trilling, *The Liberal Imagination: Essays on Literature and Society*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57), p. 181.

은 작품의 formal element들과 병행하여 history의 요소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자연 New Critic들이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된다. 인간은 'creatures of time', 'creatures of the historical sense'이기 때문에 'the sense of the past'를 갖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살아 가며, 또 그것에 의해서 문학작품을 읽어야 한다. New Critic들은 과거의 작품을 보다 더 'immediate'하게, 보다 더 'real'하게 만들려는 충동에서 작품의 historicity를 고려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과거의 reality를 과거로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그 reality를 'alive and present'하게 느낄 수 있다면서 Trilling은 이렇게 말한다.

If, for example, we try to make Shakespeare literally contemporaneous, we make him monstrous. He is contemporaneous only if we know how much a man of his own age he was; he is relevant to us only if we see his distance from us. ...Wordsworth's Immortality Ode is acceptable to us only when it is understood to have been written at a certain past moment; if it had appeared much later than it did, if it were offered to us now as a contemporary work, we would not admire it.... In the pastness of these works lies the assurance of their validity and relevance.¹⁸⁾

Trilling은 시인이 환경의 결과인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원인도 되며, 연주장에서 관객과 관객의 태도는 연주자의 환경이지만 연주자와 그의 음악은 동시에 관객의 환경을 만들고 있으며, 가정에서 부모는 아이의 환경의 주요소이지만 아이 또한 부모의 환경의 한 요소이고 그에 대한 부모의 행동을 조절한다고 했다.¹⁹⁾

결론적으로 Trilling은 extra-literary element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비평을 시도한 New Critic들과 문학이 환경의 소산이란 극단적인 역사적 비평가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답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비평가의 'primary task'를 작품의 'elucidation' 혹은 'illumination'으로 보고 있는 Helen Gardner는 예술작품들이 'historical objects'도 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대한 작품의 위력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게 되며 작품을 elucidate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말한다.

All works of art, whatever else they may be, are historical objects, and to approach them as such is, I believe, a fundamental necessity if they are to realize their power fully over us.²⁰⁾

18) *Ibid.*

19) *Ibid.*, p. 185.

20) Helen Gardner, *op. cit.*, p. 17.

Helen은 New Critic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한 말로 20세기에 와서 모든 예술작품이 historical object임을 무시하고 그것을 'autonomous'하고 'self-explanatory'한 것으로 다루는 것은 예술의 본질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This attempt to isolate the work of art and treat it as a thing *per se...* disregards the nature of art, and makes criticism a special kind of activity, divorced from our normal habits as readers.²¹⁾

작품을 historical sense를 갖고 읽으면 'quaint', 'absurd'한 것은 없애지고 'present value' 혹은 'contemporary relevance'를 갖게 된다고 했다.²²⁾ 결국 역사적, 전기적 information을 어떻게 적절히 이용할 것인가가 비평가의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 시는 과거에 떨어져 그것의 역사적 문맥 속에서 확립되고 그것이 쓰여진 시대의 aesthetic canon들에 의해서 풀이되면 될 수록 그것의 독특성과 개성이 들어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 접근법은 우리로 하여금 작품의 의미에 접근시켜주며 그것의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Gardner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시의 가치는 인간이 한 시기에 어떻게 사고하고 느꼈는가를 말해주는 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는 점이다. 즉 시는 'extra-historical life'를 지녔기 때문에 그것의 시대에 대해서만 significance, beauty, meaning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대해서도 이 세 가지를 갖도록 만들어 준다. 따라서 extra-historical 한 문학작품의 전체적 의미는 역사적으로 분석되거나 다루어질 수 없다.

요컨대 Gardner는 relevant한 전기적 정보와 직접간접의 작가의 source들 (그의 general reading과 그의 다른 작품들)이 그의 작품을 비평하는데 도움이 되며, 따라서 작품의 impersonality를 고집하는 것은 'heresy'라고 역사적 접근법을 강력히 지지하지만 extra-literary element들에 대한 연구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안되고 어디까지나 그 연구는 작품의 elucidation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²³⁾

결론적으로 Gardner는 Trilling처럼 작품을 역사적 감각 혹은 과거의 감각을 가지고 비평해야한다는 역사적 접근법을 장려하였지만 이 접근법의 단점을 지적했으며, 아울러 시적 접근법 곧 New Criticism의 단점을

21) *Ibid.*, p. 18.

22) *Ibid.*, pp. 19-20.

23) *Ibid.*, p. 23.

지적했다.

The desire of critics to examine the work as it stands, by a close study of its language and imagery, and the work of the historians of ideas, attempting to give the work an imaginative frame in the world picture of its day, have had the result of depriving particular works of their particularity, and of reducing the rich variety of one of the most richly various periods in our, or any other, literature to a kind of shadow play, hardly worthy [*sic*] the attention of the profounder critic who seeks for hidden meanings and underlying habits of mind.²⁴⁾

IV

이상에서 우리는 역사적 접근법의 이론의 골자와 셰익스피어에 적용된 대표적인 역사적 접근법의 예들을 개관하면서 그것의 장단점을 간간히 알아보았다. 끝으로 가장 큰 설득력을 갖고 역사적 접근법을 평가한 L.C. Knights와 Robert Ornstein의 견해를 알아보자.

‘On Historical Scholarship and the Interpretation to Shakespeare’ (1955)에서 Knights는 최근에 Shakespeare scholarship 내지 Elizabethan scholarship이 다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은 시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그 시의 본래의 독자들 곧 시인의 동시대인들의 입장에 들어가는 것이 첩경이라는 F.W. Bateson (*English Poetry: Critical Introduction*)의 말에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Knights는 셰익스피어에게는 교육도 있었고 art도 있었으며, 셰익스피어가 친숙했던 idea들을 비평가들이 무시할 수 없으며 그것들은 비평에 유용하다고 하였지만 한편 과도한 scholarship이 극작품을 읽을 때 갖는 독자의 ‘living responsiveness’를 아주 대체해버릴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술의 본질(‘the essential nature of art’)을 흐리게 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Knights는 두 가지 면에서 Bateson의 말을 문제삼는다. 첫째 시의 뜻들은 그 시의 본래의 독자들을 위해 지녔던 뜻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둘째 그 시가 본래의 독자들을 위해 지녔던 뜻들이 그 독자들이 의식하고 있었던 뜻들과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역사적인 접근법은 그것의 성격상 셰익스피어의 극을 ‘elucidate’할 수도 있지만 ‘obscure’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Knights는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다. Virgil K. Whitaker의 *Shake-*

24) *Ibid.*, p. 133.

*speare's Use of Learning: an Inquiry into the Growth of his Mind and Art*는 셰익스피어가 동시대의 philosophic idea들, 심리학과 신학의 지식을 광범위하게 지녔음을 보여주는 등 여러가지 면에서 Shakespeare scholarship에 귀중한 공헌을 한 historical school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가 철학, 신학, 종교의 기존 원리들(already formed concepts)에 character들을 순응시켰다("character that illustrates or conforms to philosophic concepts")든가, "the tragedies reshape the plot to fit a predetermined character problem" 등과 같은 Whitaker의 말은 셰익스피어의 imaginative exploration과 poetic thought의 깊이를 놓치는 결과를 낳는다고 Knights는 말한다.

Whitaker는 *Troilus and Cressida*를 본질적으로 'ideas'의 극으로 보고 Ulysses의 'degree' speech와 Hector의 'the moral laws of nature and of nations'를 Elyot, the Homilies, Hooker 등의 배경지식을 통해서 설명한다. 이에 대해 Knights는 이것이 relevancy가 있고 건전한 설명이지만 극은 철학적 idea들의 'dramatic presentation'이상의 무엇이며, imaginative structure로서 또 dramatic poem으로서의 극에 대한 독자들의 imaginative responsiveness를 도외시한다는 것은 극을 올바르게 풀이하는 길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Whitaker가 *Henry IV*의 I 부와는 달리 *Henry IV*의 II 부에서는 order와 natural law의 당시의 개념이 명시적으로 피력되었다고 한 말도 Knights는 문제삼아 I 부보다 II 부가 더 'philosophic'하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극 전체에 표현된 셰익스피어의 'imaginative vision of life' 때문이지 질서개념에 대한 'explicit statement'때문만은 아니라고 했다. 과거의 위대한 작가를 그의 시대의 intellectual terms만으로 풀이할 때, 환언하면 셰익스피어를 감상할 때 modern attitudes를 억눌러놓고 르네상스시대의 attitudes만을 참조한다면 셰익스피어의 극예술이 전달하는 귀중한 경험의 많은 부분을 불가피적으로 놓치게 된다는 것—Knights의 말을 빌리면 'obscuring their [Shakespeare's plays] imaginative life'—이 Knights의 골자이다.²⁵⁾

Knights는 셰익스피어 극들의 Elizabethan 혹은 Renaissance meaning들을 재구하려는 시도가 극들의 imaginative life를 흐리게 만들 위험이 있

25) L.C. Knights, "On Historical Scholarship and the Interpretation of Shakespeare", *The Sewanee Review*, LXIII, 2(1955), pp. 223-30.

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세대마다, 사람마다 다른 뜻을 동일한 극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이라면 다음과 같이 Lascelles Abercrombie를 원용한다.

'To limit interpretation to what the play may have meant to Elizabethans is, frankly, to exclude the existence of the play as a work of art; for as a work of art it does not exist in what it may have meant to someone else, but in what it means to me: that is the only way it can exist.'²⁶⁾

Knights와 Abercrombie는 무책임하고 자의적인 풀이를 배격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말하자면 셰익스피어 비평에 있어서는 'indiscipline', 'inattention', 'prejudice' 혹은 'whimsy'에 의한 풀이들을 배제한 후에도 동일한 극을 사람마다 달리 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historical scholarship (historical approach, historical school, historical criticism)에 대한 Knights의 의견은 이것의 한계와 단점을 알고 이를 셰익스피어 비평에 적용하면 극을 보다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며, stage conditions, dramatic conventions, 일부 단어들의 basic contemporary meanings 등에 관한 지식 곧 비평의 'preliminaries'를 제공해주는 scholarship은 유용하지만 이것이 셰익스피어의 imagination을 제한하도록 사용되면 안된다는 것이다. 여하한 경우에도 scholarship은 극작품을 읽고 얻는 직접적인 경험을 대체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역사적 지식이 비평에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수긍이 간다. 우리는 어떤 시대에 관한 비평가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평가와 그 시대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풍토에 대한 해석 등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의 discipline으로서의 역사적 접근법을 반대하는 것은 있기 드물 것이다. 그러나 Robert Ornstein은 역사적 비평도 다른 종류의 비평과 마찬가지로 반대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Ornstein은 엘리자베스 시대의 역사적 지식으로 셰익스피어의 도덕적 의도를 풀이할 수 있다는 역사학파의 주장을 의문시하고 도덕적 관점들이 poetic drama의 artifice 속으로 어떻게 변모되어 들어가며 관객에 의해서 어떻게 감지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한 셰익스피어의 도덕적 의도를 정확히 풀이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 이유로 그는 어떤 극작가의 cultural milieu를 논할 때 대중수준의 생각과 지식인수준의 생각을 구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술에 표현된 도덕적인 직관과 전통적인

26) *Ibid.*, pp. 230-31.

윤리사항들 간의 차이를 깨달아야함을 들고 있다.²⁷⁾

셰익스피어에 대한 도덕적인 해석이 scholarly researcher의 분야이고, scholarly research가 셰익스피어 이해를 풍부하게 만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이 극작품들의 의미를 특별히 들어낸다는 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Ornstein은 말한다. Elizabethan dramaturgy의 성격 자체 (“the immediate plunge into dramatic action”)가 등장인물의 도덕적인 면을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도덕적인 투명함을 창조하는 예술은 쉽게 분석되지 않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언어와 일상언어의 mastery이지 철학이나 신학의 mastery는 아니다. 우리는 철학자의 moral vision을 지적으로 파악하고, 극작가의 moral vision을 심미적으로 파악한다. 다시 말해서 drama에 대한 moral apprehension은 하나의 심미적인 경험이라는 것이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법인들의 대부분이 양심의 가책을 겪었다는 conventional belief는 셰익스피어 비극에 있어서 양심의 예술적 기능을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시종 Hamlet 왕자의 moral vision을 그대로 취하기 때문에 Hamlet처럼 그의 복수지연을 꾸짖으며, 그의 flood revenge의 morality를 즉각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르네상스 시대의 복수에 관한 태도가 어떠한 그것이 이점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Ornstein의 주장이다. 우리는 Hamlet 왕자의 말, 특히 그의 독백들을 통해서 그의 성격에 대한 moral impression을 갖게 되는데 만약 그의 성격을 그의 동기와 행동들을 어떤 르네상스 사상체계에 대비시켜 규정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왕자를 빼놓고 즉 시에 의해 창조된 왕자의 도덕성에 대한 우리의 인상을 빼놓고 Hamlet를 무대에 올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²⁸⁾

Polonius의 살해문제에 있어서도 관객은 Polonius가 왕자를 염탐하고 왕비의 침실에까지 숨어서 왕자를 엿듣는 것을 부당하게 보며 그의 죽음은 busybody인 그가 당해 마땅한 것으로 말하는 Hamlet 왕자에 동감한다. 제아무리 르네상스의 도덕적, 정치적 authority가 고관대작은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해야한다는 것을 당시의 여러 글을 인용하며 Polonius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당시의 관객 역시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주장해도 비평가는 관객에게 시(곧 극작품)가 일으켜준

27) Robert Ornstein, 'Historical Critic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Shakespeare', *Shakespeare Quarterly*, X, 1(1959), p. 3.

28) *Ibid.*, p. 6.

느낌이나 인상("immediate impression")과 다른 풀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관객이 극장에서 경험하는 성격에 대한 immediate impression이 mistaken 혹은 unhistorical하다고 규탄되어서는 안된다는 Ornstein의 말은 정당하다고 보겠다.

Ornstein은 Hamlet와 Othello의 parallel case를 예로하여 historical method가 반대에 부딪힐 수 있음을 설명한다. Othello는 무죄한 Desdemona를 살해했고, 엄밀한 신학적 의미에서 이에 대해 뉘우치지도 않기 때문에 영원히 고통을 겪는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말한다. Hamlet는 바로 Ophelia를 살해하지는 않지만 그녀에게 충격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녀를 창녀로 취급하고, 그녀의 부친을 살해함으로써 그녀를 미치게까지 한다. Othello의 범죄는 적어도 Iago의 diabolical malice란 참작할만한 상황을 갖고 있으나 Ophelia에 대한 Hamlet의 morality는 자신의 지나치게 민감한 상상과 어머니의 부정(不貞)이 준 충격이 낳은 sexual nausea의 산물일 뿐이다. Hamlet는 Ophelia의 장례식에서 그녀를 사랑한다고 외쳤을 뿐 그녀에 대한 잘못을 사과하거나 뉘우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Othello는 지옥에 떨어지고 Hamlet는 천사들의 승천가속에 고허 잠들 수 있는가. Ornstein은 Hamlet와 Othello의 결말은 필연적인 것이며 동시에 옳은("right")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Hamlet가 언제나 도덕적 혹은 종교적 동기들로 고취된데 반하여 Othello는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음을 scholarly documentation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셰익스피어의 극예술이 더럽혀지지 않은 Hamlet의 선함(goodness)—잠시 무너진 적은 있었지만—의 핵심을 강조한 반면에 Othello의 고상한 정신의 타락을 강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Ophelia는 minor character이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Hamlet의 「범죄돌」은 극의 보다 더 큰 moral action에 의해서 가려지지만 Desdemona는 여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Othello의 범죄는 극의 moral action 자체가 된다. 환언하면 Hamlet와 Othello는 정반대되는 moral emphasis를 갖고 있는데 Othello의 emphasis는 'the brutality of the destructive impulse'에 있다. 극 전체의 설계(total design)에 의해서 이룩된 이 moral emphasis는 Othello의 마지막 대사들에 신학적인 주석을 단다고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못된다. Hamlet의 'innocence'의 신비 역시 르네상스 신학이나 도덕 철학으로 풀 수 있는 것은 못된다.²⁹⁾

29) *Ibid.*, pp. 7-8.

scholarship은 셰익스피어를 보다 과학적으로 만들 수 있어도 과학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셰익스피어 해석이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refined, disciplined aesthetic impression'이지 scholarly fact는 아니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 자신의 artistic intention을 "recapture"하려는 역사적 접근법의 시도는 모름지기 모든 책임있는 접근법의 목표가 되어야 하겠지만 이 intention은 바로 극 속에 가장 충분히 실현되어 있고 극에서만 오직 파악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는 Ornstein은 결국 'the sensitive scrupulous examination of the text'를 역설함으로써 역사적 접근법의 한계와 허점은 text분석을 생명으로 삼고 있는 시적 접근법에 의해서 보충되고 시정되어야 한다는 함축적인 의견을 가장 설득력 있게 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역사적 접근법의 장점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역사적 접근법은 시적 접근법의 맹장의 하나인 Cleanth Brooks의 'The Naked Babe and the Cloak of Manliness'에 대한 역사학파인 Helen Gardner의 반론 'A Reply to Cleanth Brooks' (1953)와 역사적 접근법에 대한 O.J. Campbell의 옹호인 'Shakespeare and the New Critics' (1948)에도 불구하고 성격비평 혹은 심리적 접근법을 비판하는 데는 시적 접근법보다 덜 효과적이었다. 시적 접근법(혹은 New Criticism)은 Bradley로 대변되는 심리적 접근법과 Stoll로 대변되는 역사적 접근법이 소홀히한 셰익스피어의 시(poetry)를 분석함으로써 그것이 나타내는 예술적 경험을 규명한다. 다시 말해서 시적 접근법은 성격들을 실세계의 사람들인양 그들을 분석한 심리적 접근법을 비판한 역사적 접근법에 동조하면서 나아가 역사적 접근법의 결점("its concentration on the specifically Elizabethan character of the work to the exclusion of its universal character")을 비판 내지 시정하였다.

어쨌든 역사적 접근법 내지 scholarship의 발달로 우리는 이제 셰익스피어의 극을 그의 시대와 완전히 유리된 상태에서 평할 수 없게 되었다. 셰익스피어가 ghosts, witches, order, psychology, religion, political philosophy에 대한 Elizabethan view와 Elizabethan stage condition들과 dramatic convention들의 영향을 받으며 극작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Marlowe, Spenser, Kyd, Jonson 등 셰익스피어의 동시대의

작가들을 읽지않고, 엘리자베스 시대의 사회, 문화, 정치, 종교 등과 같은 셰익스피어 배경지식을 갖지않고 우리는 셰익스피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셰익스피어 극의 contemporary meaning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견해들을 그의 동시대인들의 그것들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엘리자베스 시대가 절대적 uniformity를 지닌 시대도 아닌데다가 셰익스피어와 같은 위대한 시인은 한 시대에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criticism은 scholarship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게 되었다.

Twentieth Century Shakespeare Criticism: Historical Approach

Kyung-shik Lee

<abstract>

Unlike Bradley's unhistorical approach and New Critic's anti-historical poetical approach, historical approach utilizes historical data, believing that Shakespeare could be properly understood only in Elizabethan terms such as Elizabethan theatrical conditions as well as dramatic conventions and Elizabethan philosophical, psychological, and political ideas and ideals. What are some of the noted cases of the application of historical method, how scholarship can be fruitfully used, and what are the limitations and weaknesses of historical approach constitute the focal point of the present essay.

Both E.E. Stoll and L.L. Schücking argue that *Hamlet* is just one of those Elizabethan plays which were written in accordance with Elizabethan dramaturgy and dramatic conventions and so should be dealt with as such and that it is by no means a psychological study. Lily Campbell argues that Shakespeare's four great tragedies could not be fully understood without their controlling condition, i.e. Elizabethan tragic theory, Elizabethan conception of the function of passion, and Elizabethan idea of the interrelation of passion, medicine, and moral philosophy. To Lionel Trilling a work of art is 'ineluctably a historical fact' and its historicity is a fact of our aesthetic experience. To approach works of art as historical objects is necessary to realize this power fully over us. Helen Gardner objects to the view of New Critics that a work of art is autonomous and self-explanatory on the ground that it would disregard the nature of art. She also argues that, having an extra-historical life, a poem should not be examined only historically. In short, to Gardner as well as to Trilling extra-literary elements

are important and useful so far as they are of help to the elucidation of a work of art. It is difficult, as J.I.M. Stewart says, to know what exactly Elizabethan view of drama was, but it would not be very good for understanding Shakespeare in general and his problem plays in particular to exclude totally extra-literary elements or background knowledge when elucidating Shakespeare as New Critics do.

Historical critics like Trilling and Gardner are well aware of some weaknesses of their method. For instance, there is no knowing how much "Elizabethan World Picture" reflects simple Elizabethans' ideas and thoughts and whether what is considered to be the representative Elizabethan attitudes and beliefs is the same as Shakespeare's. To study Elizabethan intellectual milieu is legitimate but to give an absolute value to such a study is misleading. In short, the usefulness of historical approach is in its being ancillary. Even L.C. Knights, a poetical critic, admits that scholarship that provides such critical preliminaries as stage conditions, dramatic conventions, and basic contemporary meanings of words is useful but is not to be so employed as to limit Shakespeare's imagination and, in any event, to replace the spectator's or reader's immediate experience.

Robert Ornstein, although he approves of historical approach as a discipline, is sceptical about historical critics' argument that scholarship enables us to get hold of Shakespeare's moral intention. Because our moral apprehension of drama is an aesthetic experience and because what our interpretation should rely on is our 'refined, disciplined aesthetic impression but not a scholarly fact, Renaissance attitude toward revenge must not be allowed to interfere with our acceptance of Hamlet's moral vision and alter our moral impression of Hamlet. Ornstein's point is that Shakespeare's own artistic intention is more fully realized in his plays than anywhere else. This leads to his implication that historical and poetical approaches can be complementary. That is, historical approach can strengthen itself by examining the text more sensitively and more scrupulously.